



K-갈등

K-팝, K-푸드, K-뉴딜, K-바이오, K-주사기에 이르기까지 요즘 웬만한 사안에는 K를 갖다 붙이는 게 유행이나 건성으로 K를 붙인 게 아니다. 한국은 세계 1등 갈등 국가이며 분열 공동체이다. 분열공동체? 형용모순이지만 길으로는 순혈주의적 요소가 강한 단일민족, 단일언어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나 속으로는 심하게 균열되어 있다.

파리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 이프소스(Ipsos)는 런던킹스칼리지의 정책연구소와 함께 28개국에서 18세 이상 75세 이하 인구 23,004명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 초까지 사회분열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2021년 7월 “세계의 문화전쟁: 국가별 사회분열상에 대한 인식(Culture wars around the world: how countries perceive division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문화전쟁으로 인한 사회분열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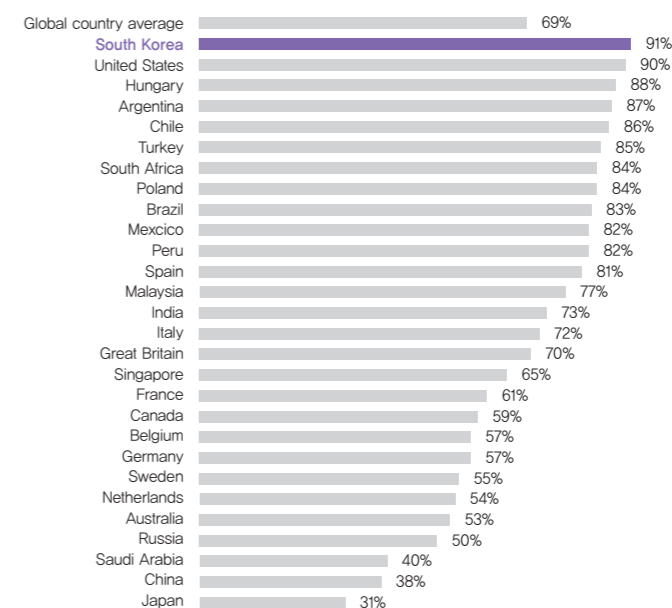
종합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TV를 비롯한 뉴스매체, 온라인미디어를 이용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한국이 ‘문화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느끼느냐는 항목에서는 8위를 차지했지만, 조사결과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러한 결과는 ‘문화전쟁’이라는 용어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87%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1위였다. 진보와 보수 간에 갈등이 가장 적은 나라는 일본으로 나타났다. 우리에게 일본은 토착왜구, 친일부역, 종군위안부, 강제징용, 방사능 오염수 방출 등 수많은 내부적 갈등 요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본인들에게 한국은 그다지 심각한 갈등요인이 아닌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젠더 갈등에서도 한국이 1위였다. 80%가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항목에서는 조사대상국 전체평균 48%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대학졸업자와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간의 갈등도 70%로 한국이 1등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갈등에서도 한국은 칠레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세대 간의 갈등이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80%를 나타내 2위 인도의 61%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으며 노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알려진 일본의 42%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이 혼재한 타인지 종교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역시 한국이 압도적인 비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제시된 정치적 태도, 인종, 이민자, 젠더, 엘리트와 비엘리트, 지지하는 정당, 사회계층, 빈부, 교육수준, 세대, 도시와 농촌지역 등 총 12개 문항에서 한국은 인종과 이민자를 제외한 10개 항목 모두 3위 안에 들었고 6개 문항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사회갈등이 가장 첨예한 갈등 국가이다.

[그림 1]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대단히 많거나 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비율



문화 전쟁

문화 전쟁이라는 용어는 독일에서 유래한다. 이름은 고상하지만 실체는 저속하다. 영혼의 담지자이자 천국으로 안내할 가이드를 자처하는 성직자와 지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자들 간의 권력투쟁이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 논쟁이자 종교적 권력과 세속적 권력 간의 주도권 쟁탈전이었다.

18세기 이후 계몽주의와 사실주의, 실증주의, 민족주의 같은 정신적 사조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은 계속 축소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치지도자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 권한을 박탈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교회보다는 국가, 그리고 교황보다는 국가와 황제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고자 했다.

19세기 들어 국민국가가 탄생하고 신성로마제국에 속했던 왕국들이 거대 제국으로 합병되면서 가톨릭 교회의 세속적 권능은 더욱 약화되었다. 이탈리아의 통일로 가톨릭 교회의 영토는 대부분 이탈리아왕국에 몰수되었다. 결국 북한강의 남이섬만한 바티칸성 안으로 줄어들었다. 영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향력도 축소되었다. 19세기에 들어 공교육이 시작되면서(이전에 교육은 대부분 교회와 수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국가는 교회가 공교육에 간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다. 왕이나 황제는 자국의 신민들이 교육을 통해 종교에 심취하기보다는 국가에 충성하는 존재로 거듭나기를 원했다.

가톨릭 교회도 좌시하지 않았다. 교황 비오 9세는 가톨릭 주교들에게 보내는 회칙을 통해 신앙 무차별론, 교정분리, 교회가 증명하지 않는 결혼, 주권재민을 인정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사회주의, 유물론 그리고 합리주의와의 타협을 거부했다. 그리고 1870년에는 교황의 절대적 권위와 무오류설을 주장하며 교권 수호에 나선다. 1871년 당시 유럽의 진보적 사조를 대표하던 프러시아 재상 비스마르크는 진보진영의 지지를 배경으로 프러시아 문화종교교육부 산하의 가톨릭 담당부서를 폐지하고 신부가 강론 중에 정치적인 견해를 밝힐 수 없도록 한다. 그리고 수도회 소속 학교도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한다. 그리고 바티칸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한다.

[그림 2] 체스 게임을 하는 비스마르크와 비오 9세의 풍자화



급기야 1875년에는 모든 결혼은 교회가 아니라 민법상으로 인정받을 것을 의무화한다. 그리고 이런 법을 따르지 않는 교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철회하고 명령에 순응하지 않는 성직자들을 추방했다. 이러한 교정갈등은 1878년 비오 9세가 선종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폭력적 수단이 동원되지는 않았다. 사실 교회는 이미 저항할 폭력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때 비스마르크를 지지했던 프러시아의 진보정치인이자 병리학자인 루돌프 피르쇼(Rudolf Virchow)는 이 시기에 벌어진 종교와 문화적 집단 간의 충돌을 문화투쟁(Kulturkampf)이라고 명명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사회학자인 데이비스 제임스 헌터는 1991년에 출판된 『문화전쟁: 미국사회를 규정하는 투쟁(Culture Wars: The Struggle to Define America)』에서 이 용어를 새로운 개념으로 부활시켰다. 그는 급격한 양극화 혹은 분극화가 미국의 정치와 문화를 바꿔놓았다고 주장하며 이런 현상을 문화전쟁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이 용어의 외연은 성평등, 인종갈등, 빈부격차, 사형제도, 기후변화, 기본소득 같은 일반적이고 거시적인 문제부터 미투(#Me Too)나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 Lives Matter), 아프가니스탄 철군 같이 특수하고 미시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망라한 모든 영역의 '뜨거운 쟁점들(hot-buttons)'로 확대되어 왔다.

문화 전쟁과 팬데믹

COVID-19 팬데믹은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현상이다.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여 장기를 훼손하고 기능을 저하시키는 생물학적 질병이다. 하지만 모든 감염병은 사회적 함의를 갖는다. 인간은 생물학적 유기체이며 동시에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존재다. 감염된 환자들은 생명에 대한 위협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위협을 느낀다. 방역을 위해서 개개인의 등교와 출근 그리고 집회 같은 사회화의 기회는 축소되고 강제격리와 봉쇄 등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사회경제적인 층위는 COVID-19의 확산을 그리고 사망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저학력 그리고 흑인들의 확진자 비율이 고학력 백인들에 비해 훨씬 높다는 여러 조사 결과가 있다. 비좁은 집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은 널찍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보다 감염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같은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위직 노동자들은 별실을 배정받는 고위직에 비해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대부분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 또 하위 계층에 속한 확진자들은 영양상태도 열악하고 기저질환 유병률도 높아 기본적으로 상위계층의 확진자보다 사망률이 높다. 질병은 생물학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 현상이며 정치적 함의도 갖는다. 질병이 정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항변할지도 모르니 한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것은 분명 정치영역의 일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과 전·월세가 급등하면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도심에서 더 먼 곳으로 밀려날 것이고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은 당연히 길어진다. 도심 지역에서 버티려는 사람들은 집의 면적을 줄일 수 밖에 없으니 밀집도는 높아진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은 높아진다. 또 다른 측면에서 코로나바이러스는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떨어뜨린다. 일단 집합금지 명령 같은 방역대책은 노동자들의 단결과 단체행동에 영향을 미쳐 노조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피르쇼의 말처럼 ‘거시적인 의료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방역대책이라는 뜨거운 쟁점을 놓고 이해집단 간에 충돌을 빚는 것은 당연하다. 질병도 문화전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불만의 팬데믹

민주사회에서 정치인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역할과 사명은 대중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국가 혹은 지역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봉사”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 진정으로 봉사할 뜻이 있는 사람은 기회를 주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봉사하지만 정치인들은 반드시 기회를 주어야 봉사한다.

선거가 다가오면 정치인들은 “봉사할 기회를 달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봉사’보다는 국민들의 불만을 교묘히 이용하는데 능숙한 것 같다. 짧게 말하면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드는데 선수들이다. 이익집단이나 이념집단 사이의 분할선(dividing line)을 파악하는데 뛰어난 감식력을 발휘한다. 일단 그 분할선을 발견하면 반대편의 불만을 증폭시켜 진영 간의 적대감을 북돋워 지지세력을 결집시킨다.

진영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도 지어내길 서슴지

않는다. 일단 전투가 벌어지면 입장지르기, 자존심 해치기, 망신 주기, 과거 행실에 지금의 기준을 갖다대 욕보이기, 조상 들춰내 험담하기, 거짓말로 환심사기, 자기과시 뺑치기, 때로 몰려가 아우성치기 등 놀부의 패악질을 방불케한다. 자신에게 불리한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논리적 자가당착으로 궁지에 몰리면 애써 점잔을 떨며 침묵모드로 돌변한다.

정치로 인한, 혹은 정치인들이 야기한 이런 사회적 갈등은 오래전부터 늘 있어왔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계층 간 불평등이 강화되면서 사회제도를 비롯한 기성질서(establishment), 그리고 그것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조직에 대한 불신은 커졌고 갈등은 첨예화되었다. 게다가 21세기에 들어 대중들을 정치적 이념이나 문화적 취향에 따른 클러스터의 형성을 용이하게 만든 인터넷과 SNS의 확산은 이런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창궐하고 있다. 세월은 수상하고 불안과 불만은 미만해 있다.

K-정치의 태평연월

태평연월(太平煙月), 요즘말로 표현하면 황금기(golden age) 정도가 되겠다. 고려말의 성리학자인 야은 길재의 시어를 읽으면 누엣누엣 해가 지고 저녁 어스름이 몰려오는 가운데 선선한 바람이 불고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

고려말이 어디 백성들이 격양가를 부르던 태평연월이었던가. 혼란한 시절이었고 격동의 세월이었다. 권문세가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부패와 방탕은 도를 더해갔으며 왜구와 흉건적은 북방의 변경과 해안지방을 유린하여 민생은 피폐해졌다. 이런 고려말이 태평연월이었다고 회고하는 길재의 심리는 무엇일까? 놓친 열차는 아름답고 지난 시절은 모두 꽃시절이라는 이야기인가. 그는 이제 체념한 것이다.

모두에게 닥친 불행은 세월이 흐를수록 아름답게 분식되어 떠오른다. 지난 세월의 궁핍조차도 어린 시절의 향수어린 추억으로 다가온다. 세월은 모든 것을 걸러내는 정화능력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작용한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아름답게 기억하는 것만이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의 의미’가 있다.

집념은 삶을 밀고 가는 추동력이지만 고통스러운 정신작용이다. 집념의 고통은 미래를 지향할 때 감내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넘치는 집념은 못된 스토크처럼 공포와 불화를 일으킨다. 때로는 체념하는 가운데 우리는 불행했던 기억과 분노를 누그러뜨리며 과거와 현재의 적들과 화해한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체념의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분열과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수많은 예비후보들이 정치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적당한 선에서 물러서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의 미덕을 보여주면 K-정치를 자랑하는 태평연월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 🍵